

폐수종합처리장 설치가 요구된다

본협회 전라남도지부의 주관으로 지난 9월 29일 「환경보전을 위한 공단간담회」가 개최됐다. 목포공단을 대상으로 행남사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본협회 생태분과 위인선위원(전남대 환경문제연구소장)과 지적관계자들이 참석 공단의 환경문제를 의논했다.

본협회는 앞으로도 각 지역별로 공단간담회를 열어 취합된 내용을 정책 결정에 건의, 바람직한 환경정책입안에 일조키로 했다. 이 글은 처음으로 열린 목포지역 공단간담회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木浦는 전라남도 務安半島 남서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일본의 나가사키와 중국의 상하이와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열강제국이 관심을 가졌던 항구였다. 시가지 동쪽에 입암산(121m), 서쪽에 유달산(228m), 북쪽에 양지산등이 둘러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다.

편리한 수륙교통 및 주변 농업지대와 다도해의 농수산물을 배경으로 공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풍부한 노동력이 공업 발전의 주요 요건이 되고 있다. 현재 조선, 자기, 양조, 제방, 고무, 메리야스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지금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1926년에 전국 무역량의 4.5%를 차지했던 목포항의 무역량이 79년에는 0.3%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지난 '81년에 영산강 하구언이 준공되어 3.471km²의 담수호를 조성함으로써 목포시를 비롯하여 그 배후지역인 무안, 영암, 함평, 나주 지역에 풍부한 농업·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일대의 농업생산 및 木浦圈의 공업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목포공업단지는 二老洞에 위치하여 소비도시인 목포를 생산도시화 함

으로써 서민생활의 향상과 고용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0년 착공하여 '72년에 완공되었다. 총면적 46만 2000²이고 약 50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큰 업체로는 행남사와 조선내화등이 있으나 타지역과 비교할 때 생산업체가 열악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수계별 하수배출량의 3.7%에 달하는 영산강의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목포공업단지는 공단규모가 작아서 인지 아직까지 폐수종합시설이 없어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지청 양방철 지도과장은 『食가공업체가 주

인 목포공업단지의 폐수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지청의 지역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천만 하더라도 1백 20억이나 들어 종합처리시설을 갖추었는데 목포공단은 공단 규모나 폐수용량으로 보아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 木浦지역은 저유황유 告示지역에 들어있지 않아 기기의 심한 부식을 감수하면서 고유황유를 쓰고 있다. 조선내화의 한 환경관리기사는 『어찌보면 고유황유를 쓰는 것이 비용이 덜 먹힐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기기의 부식으로 인한 수명단축은 물론이고 가동 비용도 2천 5백만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포도 告示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바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유황유 공급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여천·대전·안양·수원·성남·의정부·포항·온산·김해市·郡·김포郡·경기광주郡·안산·구리·시흥郡·남양주郡·부천·광명·과천·양산郡·울주郡·대덕등을 포함해서 19개시 10개군에 달하고 있다.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고

성능의 탈황시설을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되면 저유황유 공급지역을 계속 확대시킬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목포도 動資部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안에 공급지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저유황유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단적인 예만 보면 목포에 본사를 두고 광양포항에 공장을 두고 있는 J社는 포항공장과 목포공장이 똑같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목포공장이 운영비가 훨씬 더 먹힐 뿐더러 기계의 노후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또 같은 시설을 가지고 같은 値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목포의 경우는 기준치 초과로 단속을 받았고 포항공장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형평에 어긋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목포공단은 지역성 특수성과 정책적 문제등으로 인해 타공단보다 어려움이 많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해도 道와 광주시에 한군데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없어 타도에 있는 산폐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이웃하고 있는 전북에 산폐 처리업소

가 한군데 있는데 그곳에 의지하는게 유일한 처리방법이다. 지청에서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산업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아 선뜻 나설 업체도 드물다는게 중론이다.

대부분이 식품가공업체 (그것도 해산물)업체인 이곳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방지시설을 갖추긴 해야겠는데 돌아가는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식가공업 자체가 계절적 조업인 관계로 시설을 갖추 놓는다 해도 관리에 어려움도 있다. 폐수량도 일정치 않고 해초류를 다루기 때문에 염분에 의한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속에 종합폐수처리장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게 이곳의 실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아파트 평수별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방지시설의 표준설계도를 작성해 모델化 시켜줄 것 △지청에서 측정을 해간후 기준치 이내이면 통보가 안오는데 자체관리를 위해 통보해 줄 것 등이 요청됐다.<전정희>

※주소 변경시는 꼭 알려주십시오.※

회원·회원사·명예회원 및 협회보나 명예회원보를 받아 보시는 여러분계선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본협회 홍보부에 알려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의 12층

(지방의 경우 본협회지부에 연락)